金지사, 국회 기재위에 국립의대 등 현안 건의

전남지역 출신 기재위원들 릴레이 면담 지원 요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SOC 국비 추가 증액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3주 연속 국회를 찾아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 해결과 SOC 국고 추가 확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27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흥 출신 박홍근, 화순 출신 오기형·임광현 국회의원과 릴레이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릴레이 면담을 통해 국립의과대학과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등 핵심 현안 지원과 국고 추가 확보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지난 22일 정부에 추천한 것을 소개하며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특구 내 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과 특구 내 근로자 소득세 감면 확대를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심으로 조속히 시행토록 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이양사무의 재원 보전 기간이 한시적으로 2026년까지만 설정돼 향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원이 계속 보전되도록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SOC 사업에 대한 국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지역 핵심 사업을 계획한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1조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정부예산안보다 3천억원 이상 증액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서울 국회에서 화순 출신 오기형 국회 기재위원을 만나 주요 도정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SOC 증액이 필요한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천300억원(총사업비 2조8천100억원),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사업비 539억원(총사업비 5천794억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사업비 407억원(총사업비 6천244억원) 등 17개 사업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도걸·서미화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통합의대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과 2025년 예산의 국회 증액 대상 핵심 사업을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엔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지원·서미화 국회의원 등을 만났다.

국회 예산 심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인 전남도는 김 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 때까지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시교육청도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박미정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개정안'이 2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이동은 교육권에도 해당하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이 사회적 책임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에 할인율을 더해 '광주G-패스'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어린이는 무상, 청소년은 반값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 소요되는 61억원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 됐다. 이달 7일 광주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 의장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추가 소요 61억원 예산 중 2025년 25%를 시작으로 2030년엔 최대 40%까지 순차 지원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과 고물가 시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정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이 어린이·청소년들의 대중교통비 무료화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결과"라며 "청소년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용규·최지현·이명노·박필순·조석호·임미란·정다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박미정 의원은 2022년 어린이·청소년 무료 교통비 지원을 골자로 한 광주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기수희 기자

광주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전국 1위'

환경부 평가서 최고점…2년 연속 최우수 선정

광주시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이 환경부 주관 '2024년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 광주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지난해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매년 전국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운용 효율성 및 관리체계 등을 평가한다. 평가는 환경성·기술성·경제성·안전성·거버넌스 등 5개 항목에 대한 운영 실적 검증과 현장 확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악취 기술진단 추진 및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악취 관리 ▲바이오가스 생산 및 재사용을 통한 운영비 17억원 절감 ▲사료·유분 생산을 통한 폐기물 100% 자원화로 5억5천만원 수익 창출 등 환경·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 73개소 시설 중 최고 점수인 86점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은 올해도 환경부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에 선정돼 국비 8억원을 확보,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스토리텔링 광주' 여행상품 선보인다

'무등에서 온 편지'·'양림 낭만달빛투어' 등 2개 주제

광주시가 광주정신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광주근대역사문화로 구성된 '스토리텔링 광주' 투어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무등에서 온 편지'와 '양림 낭만달빛투어'를 주제로 무등산과 양림동지역을 버스로 이동하는 '반일 투어'로 진행된다.

오는 29일과 12월1일, 12월7일 총 3차례 진행되는 이번 투어 상품은 오후 3시 출발해 장소별로 90분씩 머물며 역사인물들의 이야기와 함께 각 지역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스토리텔링 광주' 투어는 참가자들에게 그동안 익숙했던 장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발견하고 역사인물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각 지역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기수희 기자

▶1면 '흑산공항'서 계속

흑산도는 수려한 다도해 경관을 자랑하는 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지만 접근성 부족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천5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4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천189명 등으로 분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단 올해 착공은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 기획재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내년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경영자포럼서 중대재해 예방 논의

전남도는 27일 "순천 마리나컨벤션에서 전남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중대재해 발생 예방과 지역 경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2회 전남 경영자 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신명균 전남경영자총협회장과 김철희 명예회장, 이성룡 광주지방노동청장, 22개 시·군 기업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에 따른 지역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순천대학교, 산업안전 진단 예방 전문기업이 패널로 참여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박창환 경제부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전남 경제를 든든히 지탱해주는 경영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자와 적극 소통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접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급매30억
***국내최대동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